

10만배 기도운동 '확산'

본지계재 김병규씨 '수행일기' 읽고 감동 우리는선우 제천지회 80여회원 동참

'10만배 기도운동이 재가불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선우 제천지회 김연호 회장(진주동물병원장)이 9월 4일부터 하루 2천배를 하며 50일 10만배 기도정진을 회향했으며, 송현선교사(세명대 전기공학), 권선보살, 김은수양(세명한의대 분과4년), 해태보살, 김영도학사(이화여대) 등들이 10만배 기도정진에 동참했다. 이들은 10만배 기도를 도반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작은 자리를 마련했다. 10월 29일 제천관공호텔에는 강원도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온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예초 30여명을 예약했으나 8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법회는 본지 '수행일기' (187~189호)란에 실린 김병규 문필회보 논설위원의 10만배 수

행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정진하겠다는 열의를 가진 제천불교거사합회, 우리는선우 제천지회, 백련사·강천사 신도회, 세명대교수불자회가 마련한 김병규 논설위원 초청법회.



우리는선우 제천지회 등 제천지역 수행단체들은 10월 29일 김병규위원 초청법회를 열고 10만배 수행결사를 시작했다.

김위원은 이날 "마음의 개혁만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다"며, 마음의 개혁은 기도와 정진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기도를 통해 저 피안의 세계로 열었다. 김위원은 "생환이든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든 잠재력과 작관력을 길러주는 요가의 압축관인 절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매일 매일 새로운 탄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며 "절을 하

면서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경상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기도를 통해 저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회를 주관한 김연호회장은 "사회가 침울하고 어두울수록 불자들이 더욱 수행에 힘써야 한다"며 "21세기를 맞아 10만배 수행결사가 제천에서 시작돼 한국불교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가한 백련사신도회 송동학회장은 "막막하건만 여겨졌던 수행길을 터준 것 같다"며 "김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10만배 기도정진의 원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동안 책으로만 불교공부를 해왔다는 이경은씨(SBS 방송작가, 경기도 과천시)도 "남편과 함께 10만배 정진하며 향기로운 글을 남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위원 기자 (wkim@buddhania.com)



○ 확대들로 방치됐던 팔공산 마애약사불이 서울 길상사에 봉안된다.

팔공산 확대들로 방치됐던 약사불 길상사에 모셨다

팔공산자락의 확대들로 방치돼 있던 마애약사불이 길상사로 이운됐다.

10월 25일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이근후회장(이대대교 교수), 서현 담사부장, 김종욱 대구과학고 육원 교육연구사, 길상사 영선스님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가운데 부처님에게 이운을 알리는 고불식을 가졌다. 고불식에 이어 불상 주변 확대를 해체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석불을 드러내는 작업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 석불은 2년 전 김종욱씨가 대구교육원 운동장에 확대로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이근후회장에게 제보했

다. 이회장은 조계종총무원과 여러 사찰에 공문을 보내 부처님을 모실 곳을 찾았으나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초 길상사 주지 청학스님이 이회장을 불러 모시기 원을 밝히면서 길상사와 인연을 맺게 됐다.

〈본지 137호 4면 참조〉 최초 발견자인 김종욱씨는 "부처님이 제자리를 찾아가니 불자로서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길상사주지 청학스님은 "과대를 새로 만든 뒤 11월말 점안식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포교사단

11·12월 포교사 교육

사찰안내, 상담 등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이 11, 12월 두 달 동안 실시된다. 조계종포교사단은 10월 29일 "포교활동 영역과 계층이 다양화함에 따라 전문화된 포교인력 배치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며 교육일정을 밝혔다.

포교사단은 또 포교사제도 개선을 위한 2, 3차 토론회를 4일과 17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뉴스 & 뉴스

조계종교육원 교직원연찬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 불학연구소는 10월 27일 성북동 길상사 극락전에서 전국 승가대학 교수스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원 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승국스님(승광사 교수)은 "1학년 사미과 교재의 구성에 대한 검토-현 중국산술 치문 구성을 한국산술로 대체하는 방안"발제에서 "한국산술의 교학과 수행을 담은 한국 치문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교재는 어느정도 수용하면서 한국산술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원은 10월 2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역경연찬회도 가졌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원각사 노인급식소 개원

서울 원각사(주지 보리스님)는 10월 27일 오전 원각사지 탐골공원에서 '보물 제3호 원각사지 비파 준공기념 및 원각사 향적로 개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무(이천 영일암 주석), 고용(청량산 각화선원 원장), 송원(진주 송원사)스님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원각사 공양간의 옛 명칭을 딴 '향적로'는 공인인근 종로구 낙원동 220번지에 소재한 30평 규모의 노인 무료급식소로서 매일 4~5백명의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공양을 실시하게 된다. (02)741-8822 김재경 기자

'종교계 사회복지' 심포지엄

지난 6월 창립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는 11월4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각 교단의 사회복지활동의 교의적 근거'를 주제로 제1회 심포지엄을 갖는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참여교단으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예장통합, 기감, 기장, 구세군대한불교, 대한성공회, 천주교 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원불교 등 8개 교단이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nia.com)

법사연합회 연석회의

한국불교법사연합회(공동대표 성진규 한양정 정병조)는 11월 송원클럽에서 회장단 고문 지도위원 연석회를 열고 재정마련 방안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법사연합회는 지난 6월 창립 때 전개기로 했던 △법사 품계 제정 △포교단 운영지원 △법사 연수과정 운영 등을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자비의 쌀 26세대 전달

새불고운동진승가회(공동의장 진관, 석담)는 10월27일 도봉구 안골마을 실직자 및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26세대에 자비의쌀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봉사 초하루법회 때 고은 40kg짜리 쌀 207가마를 비롯 총 26가마로 자민연 도봉을 지구당을 통해 전달됐다. 도필선 기자

노인휴양원 '양지정사' 개원

성남포교원, 용인에

전국불교신도회 경기도지부 성남포교원(주지법사 임선교)은 11월1일 경기 용인 주북4리에 유로 노인휴양원 양지정사를 개원한다.

7백50평의 정원을 갖춘 한옥식 건물로 이뤄진 양지정사는 아미타부처님이 봉안돼 있는 법당과 방 7개, 운동기구실, 샤워실 등이 갖춰져 있어 10명의 할머니를 모실 수 있다. 또 매일1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국대 분당 한방병원의 도움으로 무료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성남포교원 소속 불자 중 수지침과 안마, 뜸 등의 기능을 갖춘 불자들이 봉사반을 운영, 매주 1회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성남포교원은 이와함께 11월15일 양지정사 법당의 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와 동시에 인근 산자락에 세워질 1백50평 수용규모의 노인요양원 기공식을 갖는다. 1천5백여평의 대지에 4층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이 요양원에는 무의탁 노인들도 수용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총장재임반대 성명

동국대 학생-교수회

지난달 22일 동국대 송석구 총장이 차기 총장에 재선출된 것과 관련, 교수회와 직원노조,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회는 차기총장 재임결정을 철회하고, 이번 결정의 책임을 지고 이사 및 송석구 총장은 사퇴하라"고 천명했다. 특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10월26일 이사회장실을 점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송석구 총장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학내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대학과 법과대학, 의료원은 10월27일 각각 이사회에 결정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nia.com)

박세리 계룡산 등월선원 참배

골프 여왕 박세리선수가 28일 고교시절 세계적 골프스타의 꿈을 키우며 자주 찾아가 마음을 다스렸던 계룡산 자락의 등월선원(주지 석암스님)을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다. 등월선원은 아버지 박준철씨와 어머니 김정숙씨가 딸을 미국 무대에 보낼때 지성으로 불공을 드렸던 곳이기도 하다.

박선수는 "부처님의 가피가 오늘의 나를 있게한 원동력이다"며 "어려운 고비때마다 참선과 기도로 이겨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nia.com)



박세리 선수가 계룡산 등월선원에 참배하고 있다.

남북불교합동 윤이상추모제

4일 평양 법운사

남북불교계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한 윤이상 선생의 위대한 생애와 조국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기리기 위한 '남북불교합동추모제'를 11월4일 평양 음악사 법운암(예정)에서 봉행한다.

故 윤이상 선생 부인 이수자씨의 요청과 북한 윤이상음악연구소(소장 김경호)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故윤이상 선생 남북불교합동추모제'에는 심상헌 서기장을 비롯한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고문 정산스님과 삼암부회장 지현정사(진각복지회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정산스님과 지현정사는 10월31일 7백8일의 일정으로 베이징을 통해 방북한다. 한편, 추모제에 앞서 11월3일부터 평양에서는 남북한 음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이상 통일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는 5일 까지 계속되며, 박범훈 국립악관 관현악단장과 명창 안숙선씨 등이 남측 음악인 11명과 함께 31일 베이징을 거쳐 북한을 방문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수능을 앞둔 이때쯤이면 예외없이 각 일간지의 1면 톱을 장식하는 사진이 있다. 대입 자녀들을 위해 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들 사진이다. 이러한 사진을 볼 때면 자녀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원이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또 괜스레 슬퍼한다. 절이라는 곳이 대학입시를 위해 복을 비는 곳이란 인상을 온 국민들에게 주는 것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의 한 사찰에는 대웅전을 비롯 그 좁은 경내 곳곳에 '대학입시 백일기도 봉행' 대형 현수막을 붙여놓았다. 20만원이란 동참비를 받고 백일동안 기도를 올려준다고 한다. 이렇게 입시철이면 도심의 사찰은 물론 산속의 절까지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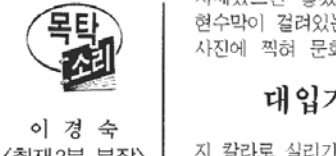
분 '대학입시 백일기도' 현수막을 걸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기도 동참 대형 현수막을 부처님 몸이라 할 대웅전 벽에까지 걸어놓는 일은 자재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현수막이 걸려있는 대웅전 사진에 찍혀 문화재 책에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요란하게 현수막까지 걸고 광고를 해야하는가. 차라리 절에서는 부모들에게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한번이라도 동반해 직접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권유했으면 한다. 또한 한 기도동참비를 받기보다는 법당 한켠에 따로 조그마한 불전함을 마련했으면 한다.

그 불전함에는 이렇게 쓰여있으면 좋겠다. "올 겨울은 풍미 흙 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정성껏 회사하신 이 보시금은 모두 실직노숙자들이나 점심을 못 싸오는 학생들, 불우노인, 청소년들의 겨울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gslee@buddhania.com)

대입기도 동참 현수막

지 팔라로 실리기도 하니 정말 꼴불견이다. 불자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서는 정말 자녀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이 느껴져 아름답다. 또한 신도들을 위해 절에서 같이 백일기도를 정성껏 올려주는 일도



이경숙 <취재2부 부장>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총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부터 차차 침투한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한일시킨 결과, 놀랄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판각형
· 만다라 : 양미늘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 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 처리
규격 : 45cm x 45cm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신비한 작용

◎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막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추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집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기(氣)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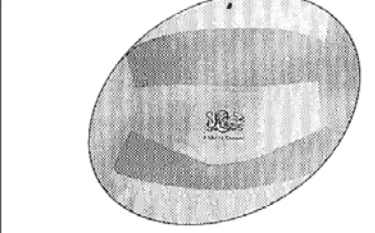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형) 테크팩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을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 **체형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통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거기가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이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배만 아픈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갈)에 찌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랄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말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갈(배꼽)에 착용하면 방한약용식물의 성분은 신갈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침투하여 각종 효과를 봅니다. 향비는 자연형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기기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향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갈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억,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유역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뒷덜미가 고통스럽다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인하는 것 같다
 - 16 목이 베려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감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